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대응

군산시, 폭우·폭염등 전방위적 재난 예방 총력... 안전한 군산시 만들기 위해 역점

군산시가 여름철 자연 재난인 태풍·호우·폭염에 대비한 각 부서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준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 태세를 갖췄다.

군산시는 역대 최악의 폭우가 군산시를 덮었던 2023년 여름에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를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그간 자연재난에 맞서 선제적인 대책 수립과 철저한 예방조치를 준비해 왔다.

올해 열린 대책회의 역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관 부서별 준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부서장을 비롯한 17개 협업 부서장이 참석했다.

먼저 군산시는 풍수해 대비를 위해 종합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62개소와 상습침수 주요교차로 책임자를 지정해 재난 예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켰다.

또한 급경사지 117개소, 산사태취약지역 42개소를 포함한 우기 대비 취약지역 안전점검도 실시했으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도 완료했다. 어항·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우수지, 예·경보 시스템 점검 및 하수관로 준설과 노후관로 개보수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유달리 무더위가 예상되어 폭염 대비 준비도 강화했으며, 2024년 신규로 그늘막 29개소, 그린롱

합합터 1개소를 설치했고, 기존의 폭염 대비 그늘막 145개소, 무더위쉼터 519개소도 확인을 마쳤다.

어르신들이 모여 더위를 피하는 관내 경로당 471개소에 설치된 냉방기 588대 역시 점검 후 세척 및 냉매 보충을 통해 시원한 여름나기 가능하도록 준비를 끝냈다. 또한 취약계층 관리자들은 폭염 등 기상청 문자서비스 신청을 완료해 이상 고온에 대비하게 하는 한편, 물품 지원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온열질환 환자를 위한 응급실 감시체계는 5월~9월까지 운영되며 폭염에 따른 일일 온열질환 발생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세방이의순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세방공간'의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익산시 '세방공간' 대상지 선정

세방이의순재단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7000여만원 지원 받아

익산시가 세방이의순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세방공간'의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난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세 곳의 후보지 중 지원 필요성 및 목적 부합성 등이 가장 적절해 선정됐고, 신규 설치될 공동육아나눔터로 지역사회 돌봄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주요한 선정 요인이 됐다.

이에 익산시는 신규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에 7000여 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신규 공동육아나눔터는 오는 11월 모현동에 완공 예정인 여성가족회관 다우리 1층에 마련된다.

사업비를 활용해 친환경 인테리어 시공과 아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방이의순재단 관계자는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방공간 사업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활동

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방그룹은 사회공헌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구성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뜻밖의 리모델링 지원을 받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세방이의순재단의 귀한 나눔을 늘 기억하며 우리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방이의순재단은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지원사업,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민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방그룹은 종합 물류 기업 세방(주)와 로켓배터리로 잘 알려진 연속진 지전문 기업 세방전지(주)가 속해 있고 2023년 매출 기준 약 3조 규모의 종건 그룹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보건소, 무더위 온열질환 발생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가 지속되는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주의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열사병, 열탈진(일사병)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시원하게 내기 △ 규칙적인 수분 섭취 △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 외출 시 햇빛 차단하기 등의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당뇨병·차폐 등)는 보호자와 주변인이 꼼꼼하게 살펴 민원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억원 부과

군산시가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5593건 12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임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공공차,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별제한법 개정으로 보험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화(063-454-2405) 상담 후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농가·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익산시, 작업 현장·숙소 방문 고용농가·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상반기 240명 하반기 170명 배치

익산시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7개 농가의 작업 현장과 근로자 숙소를 방문해 농업인 및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농가와 근로자가 만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이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베트남 애아순현과의 계절근로자 파견 및 수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근로자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3명이 77농가에 배치됐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77농가에 240명이 근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30여 농가에 약 17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방문 외에도 고용농가 및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채팅 어플(Zao)을 활용하고 있다. 타국 생활이 힘든 근로자들을 위해 채팅방에 파견해 주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국 최상위 수준의 보건의료체계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우수 지자체 성과공유회에서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계획 수립' 부문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1차년도 목표 달성 노력도 및

자원 협력 노력도를 비롯해 2차년도 시행계획의 적절성, 목표설정의 타당성 등 10가지다.

익산시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1차년도 추진 결과를 분석하고,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진 피해 대응 재난안전상황실 강화

익산시가 지진에 따른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지난 12월 지진 발생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고 하천, 급경사지, 교량, 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 전기 및 가스 시설, 의료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여진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13일부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가동해 피해 신고 접수 시설에 대한 건물 사용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김성도 기획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며, 건축·토목·전기·소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진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